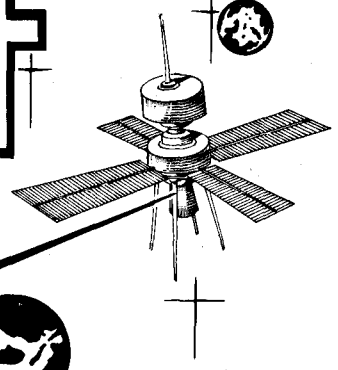


안테나



盧永翰
(본지 편집국장)

마음을 비워야 올바르게 볼 수 있다.

배합사료 가격이 내릴만큼 내렸다는 사료업자와 더 내려야 한다는 양축가의 주장은 배합사료가격을 보는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양계산업은 어느 정도 기업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가부업이나 중소 규모로 농가소득작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올바르게 본다는 것이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물건은 보는 위치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원통을 위에서 보면 원으로 보이며 옆에서 보면 원통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위치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은 다르게 보인다. 즉 나와 어떤 이해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은 다르게 보인다.

금년부터 정부가 류코싸이토준병의 예방제로 사용하여 오던 피리메타민이란 약제를 발암성 약제라 하여 사용을 금지시킴으로 양계농가들에 큰 피해가 올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조치이고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아무일도 없었는데 대체할 약제가 나오기까지는 사용하였으면 하겠다.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값이 비싸고 시장성만 있으면 시험을 통하여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고 싶을 것이다.

7월 1일부터 수입이 개방될 통조림류도 마찬가지이다.

수입업자는 많이 팔리기를 바랄 것이고 생산자는 적게 팔려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쇠고기를 수입하던 70년대 후반기에 수입쇠고기 판매업소가 쇠고기 수입압력단체가 된적이 있었다. 이들은 수입쇠고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일 것이고 양

축가는 그들을 괴롭히는 독침으로 보일 것이다. 육가공품 수입개방에 따라 육가공업체는 이번 기회에 가공용 원료육의 수입도 개방되기를 바랄 것이다.

수입개방이 국제경쟁력을 높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하면 국내산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생산조절을 통하여 적은 수량을 생산하고도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세계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서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영을 개선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은 각기 처해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 밖에 없다.

배합사료 가격이 내릴만큼 내렸다는 사료업자와 더 내려야 한다는 양축가의 주장은 배합사료가격을 보는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양계산업은 어느정도 기업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가부업이나 중소규모로 농가 소득 작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배합사료의 수입은 개방하면서도 외화절약을 위해서 사료

용 곡물의 수입은 제한하여야 한다는 정부측과 수치를 들어 수입제한이 오히려 외화낭비임을 주장한 학계나 양측가의 주장은 어찌면 한사건을 보는 위치에 따라 이렇게 정반대로 볼 수도 있는 것인가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행정력으로 하면된다는 생각과 경제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원리에 따라 되는 것이며 힘으로 선불리 막거나 흐름을 바꾸면 안된다는 주장이 맞사나 결국은 연말에 쿼터량 고수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기는 하였으나 많은 부작용이 뒤따른 후였다.

인사문제도 그 자리는 행정관료이어야 한다고 보는가 하면 기술자가 해야한다고 보기도 한다.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사용자와 고용인과 추천한 사람간에는 보는 입장이 다르다. 어느 위치에서 보아야 올바르게 보는지를 재고, 삼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몇년전 미국의 저명한 통신사 기자가 캄보디아의 프놈펜을 취재차 다녀온 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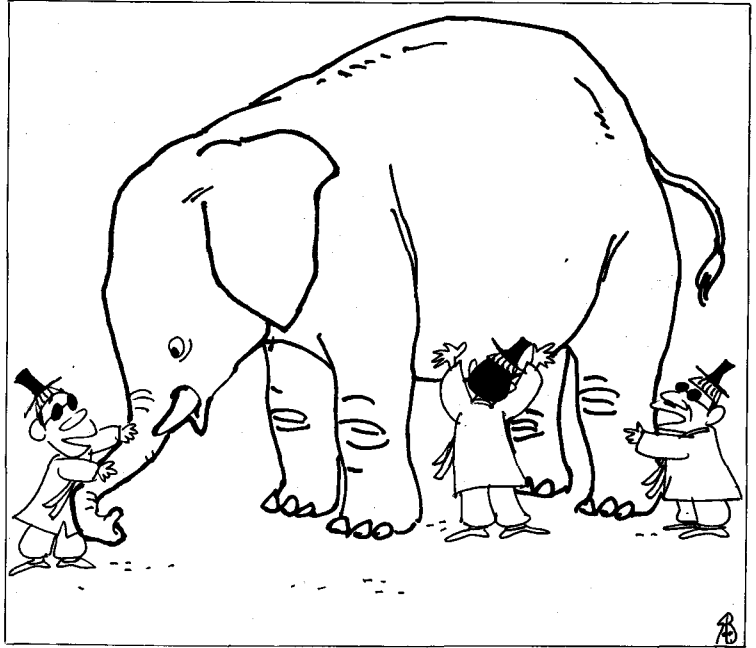
전세계 자유인들이 프놈펜의 비인간적인 무차별 학살에 분노를 금치 못했지만 정작 프놈펜의 지도자들은 대량 학살만이 캄보디아를 구하는 길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진다.

자기가 잘되면 세상은 모든 것이 잘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시대 쌀값이 오르니까 고기나 과일을 먹으면 될 것을 왜들 쌀밥만 먹으려 하는지 모른다고 고위층에서 한말씀 하신적이 있다.

달동네 서민과 고위층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대립과 분열은 보는 위치에 따라 또는 정보부족, 이해관계에 따라 사물을 올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와 토론의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올바르게 운영될수록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 복지원 사건도 오갈데 없는 사람들을 공기 맑고 조용한 복지원에서 사랑으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원생들을 보살펴 준다고 보는 측과 인간지옥으로 보는 측은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재판이란 검사와 변호사의 각기 다른 위치에서 보는 실상을 듣고 판사가 판정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통시적(通時的) 시각과 공시적(共時的) 시각이 만나는 자리에 서서 볼 수 밖에 없는 유한성의 존재이다.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야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완전한 것은 물론 아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밖에 없고 자기가 보는 것이 옳다는 신념으로 목소리를 높이게 마련이다.

부화장은 양계경기전망을 장미빛

으로 보고 양계업자들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으로 볼 때가 많다.

협회가 보는 것이 정확 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협회는 협회의 위치에서 보는 것 뿐이지 전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원통을 원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원통이 원이 되는 것도 아니며 원통을 사각형이라고 우겨도 사각형이 될 수도 없다.

정부의 위치에서 축산업을 보는 것과 축산업자의 위치에서 축산업을 보는 것과 학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같을 경우가 극히 적은 것은 보는 위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과연 올바르게 볼 수는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니 우선 가능한 범위내에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첫째, 사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충분하고도 올바른 지식없이는 올바르게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힘으로 바꾸어 놓은 교황은 종교적인 교리 문제와 과학에 대한 기초정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자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위 마음을 비워야 올바르게 볼 수 있다. 대부분 자기의 이해관계와 결부시켜 사건을 보기 때문에 잘못보게 되고 일을 그릇치는 수가 있다.

셋째로, 사건 자체의 시각에서 그 사건을 보아야 한다.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고 어느 위치에서 보아야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여 그 위치에서 보아야 비교적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처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산업의 위치에서 보는 것이 더 올바르게 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이나 또는 학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제삼자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보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나 산업의 주역은 역시 양계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사료·약품·기구업자들이 양축가의 입장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부나 학계에서도 양축가를 위한 정책과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도 큰 흐름은 소비자, 그중에도 서민의 입장에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직접 양축가가 되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것도 가능하면 문제가 많은 농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장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사건을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류코사이토준의 피해를 당해 보지도 않은 농장에 류코사이토준의 무서운 피해를 설명해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하루살이에게 내일 일을 걱정해도 내일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며 메뚜기는 눈오는 겨울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자기와의 이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회의 토론과 공부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회의와 토론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 의견을 종합함으로써 좀 더 실상을 볼 수 있게 된다.

대립과 분열은 보는 위치에 따라 또는 정보부족 이해 관계에 따라 사물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의와 토론의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올바르게 운영될수록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데 도움이 된다.

월간 양계는 사건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첫번째 필요조건인 충분한 정보제공에 노력할 것이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 사건 자체의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좌담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이해가 다른 사람이 상대방의 위치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물론 이해 관계를 떠나서 말이다.



소득표준을 인하

산란계와 육계업이 분할된 것은 세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문제이었는데 이번에 양계업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세청은 3월 28일 86년도 사업 분 소득표준을 대부분 85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발표하면서도 육계 사육업에 대하여는 전년대비 20%가 낮은 7.2%로 하향 조정 발표하였다.

제2의 세율이라고 불리는 소득 표준율은 그간 양계업의 경우 기본율이 9%로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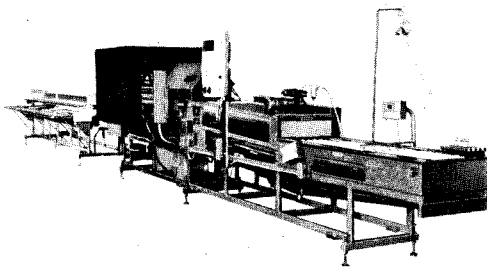
지난해 정태원회장이 취임하면서 양계업에 대한 각종 세제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 이후 지난 해에 농가부업 양계규모가 3천수에서 1만수로 크게 상향조정된 바 있었다.

이번 소득표준율이 20%인하된 것은 정태원회장의 공약 실천으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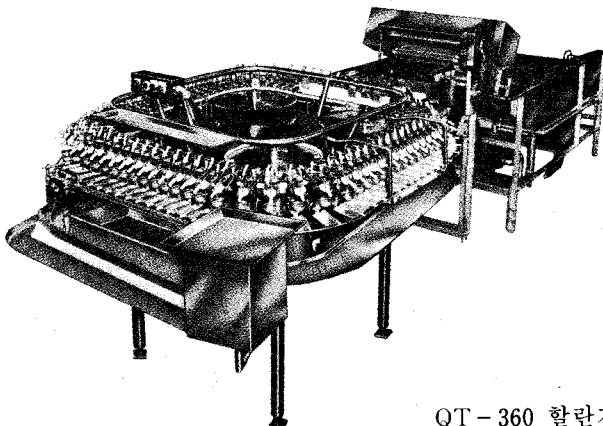
간 문서로도 농림수산부와 국세청에 현실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양계산업의 현황을 충분히 설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란계와 육계업이 분할된 것은 세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문제이었는데 이번에 양계업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채란업의 경우에는 지난 해와 같은 9%인데 금년에는 소득표준을 인하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양계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양계인들이 기장(記帳)을 철저히 하여 근거를 가지고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면 될 것이다. 비육우의 경우도 작년과 같이 무세(0%)로 확정되었다. ♡



Kyowa (共和) G·P기계는 日本에서도 당연 No.1 !



QT-360 활란기

Kyowa G·P기계는 세계 어느 MAKER보다도 구조 및 운전이 간편합니다.

- 대형 : 15,000~40,000개/시간
- 소형 : 3,600~10,000개/시간

1. G·P기계류 (위생란류)
2. 계란가공기계류 (액란, powder)
3. 난좌 세척기류

※ 폐사는 G·P 및 계란가공시설 전문업체임.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3-1
(성원B/D 1302-1)
송원실업(주) 776-1827,
FAX 757-3707

日本:共和機械(株)

TEL: (0868) 26-6600,
(미국 HENNINGSEN 기술제휴)